

수탉의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회개(눅17)

성경말씀: 눅22:54-62

유월절 만찬 후 올리브 산, 겟세마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42), 3번, 육체의 죽음, 조롱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원히 떠나는 둘째 사망, 피땀이 흐르고 천사가 도와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잔을 받음, 제자들의 무능력 유다와 군사들의 등장, 드디어 그들의 시간, 어둠의 권세(53)

그들의 손에 넘어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감(54)

예수님은 처형 전 6번의 공판 혹은 심리를 받음(3번 유대인들, 3번 로마의 권세자들)

유대인들: 1. 안나스(요18:12-13), 전직 대제사장, 2. 가야바,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마26:57),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눅22:66-71), 종교법에 의한 유죄, 사형 불가, 이에 로마 권세 이용 로마 권세: 1. 빌라도(눅23:1-4), 2. 헤롯(눅23:6-12), 3. 다시 빌라도(눅23:13-25), 사형 허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오늘은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하는 장면,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주님과 가장 많이 대화한 사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사랑한 사람(마16:22), 진지한 고백(눅5:8; 마16:16) 심지어 바위 위를 걸은 사람(마14:28-29), 이런 사람이 결정적인 때에 주님을 부인한다!!!!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3번,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베드로가 부인하게 된 이유

1. 주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지 않음(눅22:31-34), 자만
2. 겟세마네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음(눅22:40, 45-46), 자신을 모름
3. 그 결과 용기와 열심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마16:23), 우리는 어떤가? 멀리서 따랐다(54), 요한도(요18:15), 손해와 박해를 볼까 봐,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마26:31-35). 주님의 분명한 말씀(요18:8-9)

우리 주님은 그들이 자기를 따라오면 안 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들은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간적인 오기가 들어 있다. “나는 겁쟁이가 아니다!”, 증명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을 잘 아는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다(요18:15-16).

1. 불 쬐다가, 대제사장의 하녀(56), 부인, ‘마16:16 주는 그리스도시오’... 현관으로 옮김(마26:71) 이때에 수탉이 한 번 울(막14:68), 이때 나갔어야 했는데 여전히 머뭇거림
2. 그러자 다른 하녀(58), 부인
3. 한 시간쯤 지난 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말고의 친척, 59), “내가 그와 함께 있던 너를 동산에서 보지 않았느냐?”(요18:26),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네 말투가 증명한다”(막14:70)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함(막17:71), 수탉이 다시 두 번째 울(눅22:60)

예수님이 몸을 돌려 베드로를 보심, 아무 말씀도 안 함

그를 보는 것 자체가 그의 마음을 부숨(61),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62): 내 울음, 회개의 울음소리, <수탉의 울음소리와 베드로의 회개>

수탉의 울음소리

0. 닭이 두 번 우는가, 한 번 우는가?

주님의 말씀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22:34, 61)

마태(26:74)와 누가(22:60)는 수탉이 한 번 울

마가는 두 번 울(마14:30), 첫째 하녀, 그리고 마지막 남자

막13:35 유대인들의 밤 사 등분: 저물 때, 한밤중, 닭 울 때, 아침녘

네 경점, 6-9시, 9-12시, 12-새벽 3시, 새벽3시-아침 6시

주님은 수탉이 우는 경점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세 번 부인한다(새벽 3시).

그러나 닭 자체는 두 번 운다.

- (***)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수탉 가운데 하나가 제 시간에 울어대는 것 자체가 기적 수탉까지 사용해서 베드로를 사랑해 주시고 회개하게 하심, 수탉의 울음소리가 격려의 메시지
1. 예수님은 지금 죄수로 끌려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드로에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3년 반의 기적, 질병, 마귀들, 죽음, 갈릴리 폭풍우, 물고기 동전(마17:24-27).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 안에 소망이 있다(경제, 결혼, 직장 등).
믿음 지키고 살기가 힘들다(성경, 구원,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양육). 그래도 소망이 있다.
 2.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귀를 기울이게 됨(61). 수탉의 울음소리는 또 다른 말씀도 기억하게 함(31-32), 돌이킬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소망
 3. 짧이 울면 새 날이 시작된다. 유다나 그분을 잡아간 자들에게는 새 날이 아니다. 매일 오는 날이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새 날이 왔다. 그는 비통하게 울었다(62). 회개의 새 날
대통령 탄핵 파면, 외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기, 국가의 위기, 하나님의 말씀(대하7:14)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의 회복

- 우리 인간에게는 고통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어겨 가면서 좋은 의도로 실수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다(롬15:4). 말씀 기억, 온전히 보존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
그 결과 비통하게 울면서 회개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가장 크게 사랑하신다(시51:17).
1. 부활하신 날 아침, 두 여인의 무덤 방문, 천사의 메시지(막16:7)
 2. 그리고 바로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심(눅24:34). 교제를 회복시켜 주심

우리의 결단

1.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이게 인간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러 모로 수탉의 울음소리를 주신다.
2. 마귀의 말, “너는 끝났다. 네 장래는 없다”,
3.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수탉의 울음소리를 주시고 다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신다.
4. 어떻게 아는가, 베드로를 보라
5. 그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여 교회 시대를 열었다.
행2:22-24, 36, 37-38, 4:12, 20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교하며 주님을 사랑함(요21:18)
6.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기억해야 한다. 요일2:1-2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7. 수탉까지도 사용해서 회개하게 하신다.